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

김보영** 김현주***

Kindergarten Teacher's Difficult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and Parents

Kim, Bo Young Kim, Hun Joo

본 연구는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부모 관계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를 밝힘으로써 원만한 교사-부모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부모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들의 자세는 어떠한가이다. 연구 참여자는 경상남도 C시에 근무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 15명으로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요인은 부모요인과 교사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교사는 부모의 성향과 요구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교사는 교사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어려움은 같은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는 교사-부모 간 입장 차이와 교사들이 문제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느끼는 개인적 감정변화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부모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들의 자세는 4가지로 나타났다.

▶ 주제어 : 교사-부모 관계,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

* 본 논문은 2013년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일부이며, 본 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한 논문임.

** 제1저자 : 원계 자연 어린이집 교사

*** 교신저자 :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khappyzoo@kyungnam.ac.kr

I. 서론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함으로써 맺어진 유아를 매개로 하여 맺어지는 관계이다. 또한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 자신들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루어진 관계이며, 유아교육 및 유아의 발달에 관계되는 일에 한정되며, 교사에게서 지도를 받는 기간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비영구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윤기영, 박상남, 2001).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특성은 교육대상이 다른 단계의 교육에 비해 절대적으로 어린 유아라는 유아교육의 특성을 전제로 한다(이남희, 2008). 그렇기 때문에 교사-부모 관계 형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부모-교사 관계는 유아-교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예측하는 강력한 교사관련 변인이다(Chuan, Marvin, & Churchill, 2004). 유아는 부모와 교사 간에 유아에 대한 지도에 일관성이 있을 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가 유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의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고 상호역할을 인정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이찬주, 2002). 그러므로 어린 유아들에게 있어 부모 다음으로 양육자로 만나는 교사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므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유아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자, 관찰 및 평가자, 부모와 유아의 상담 및 조언자, 학급 관리자, 의사결정자, 연구자의 역할을 한다. 유아교사의 주된 업무는 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것이며, 부모와 관련된 업무들 중의 하나가 유아 부모와의 관계맺음이다. Powell과 Diamond(1995)는 유아교육프로그램에서 부모-교사 관계에 대한 미래의 초점은 부모들을 학습자와 의사결정자로 각각의 역할사이에 중심을 잘 유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모들의 선호도를 존중함과 동시에, 부모의 전문성을 자원으로 잘 융합하여 활용한 동반자적관계(partnership)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모는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교사에게 전달하며, 교사는 부모의 의사를 수용하고자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며,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갈등은 다양하고 각기 다른 행동양식으로 인해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오해, 차별, 선입관 등을 경험하게 만든다(박근주, 송원호, 김연진, 이화영, 2009). 이러한 갈등과 그 속에서 발생한 오해와 선입견 등으로 교사와 부모는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급속한 성장·발달은 여성의 의식변화와 취업모의 증가를 가져와 유

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여 하루의 대부분을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게 되었고, 더불어 부모들은 자녀에 대하여 과잉보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녀 교육 문제는 유아교육기관에 거의 일임하는 이중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있어(임효선, 2010) 유아교사들을 힘들게 한다.

이외에도 유치원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유아교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별 소득증가와 자녀수 감소로 인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자녀를 보내는 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교육과정과 교육 운영 및 교육 환경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게 되었다(김은숙, 2001; 변은정, 2006).

한편 Berger(1995)는 부모의 역할이 관찰자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맡긴 부모에게 맞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류왕효, 1999, 재인용). 교사(parents as teachers), 참관자(parents as spectators), 일시적 봉사자(parents as temporary volunteers), 봉사자의 자원(parents as volunteer resources), 고용 자원(parents as employed resources), 정책입안자(parents as policy makers)로서의 부모 역할을 제시하였다. Henderson(1987)은 동료로서의 학부모(parents as partner), 협력자 및 문제해결자로서의 부모(parents as collaborator and problem-solvers), 청중으로서의 학부모(parents as audience), 지원자로서의 부모(parents as supporters), 자문 의사공동결정자로서의 부모(parents as advisors and co-decision maker)로 나누었다(류왕효, 1999, 재인용).

유아교육기관을 경험하는 유아의 수가 증가하고, 기관에 입학하는 연령이 하향화되면서 교육 및 양육의 장이 유아교육기관으로 단순히 이전된 것이 아닌 교사와 부모가 보다 나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손세란, 2008). 교사-부모의 관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유아교육의 질은 달라진다. 교사와 부모는 보다 나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관계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더욱 중요시 된다. 교사와 부모는 모두 협력을 통하여 서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교사와 부모가 성공적으로 협력할 때 교사는 부모로부터 교육적 지원과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성을 인식할 수 있다(임우영, 2010). 유아의 사회화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교사와 부모가 양쪽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부모-교사-유아에게 지원적 교육을 하기 위한 수단인 교사-부모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이미자, 2006). 그러므로, 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는 교사-부모는 일관된 양육 및 교육태도를 취해야하며, 부모는 교사와 함께 유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유아를 함께 키운다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한다.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의 개념은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이 유아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만들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능력과 자원을 함께 축적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개념에는 상호간의 명료한 목적을 지닌 동등한 관계, 분명하게 협의된 역할 및 참여자간의 공평한 의사결정 권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동반자적 관계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교사의 관계에 대한 이상이나 모범을 표현한다(임우영, 2010).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는 유아를 교육하는데 있어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의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고 상호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찬주, 2002). Compion(1992)은 보육교사와 부모는 모두 영유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영유아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항상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고혜진, 2009, 재인용).

한편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이 지각하는 큰 스트레스 요인 중의 하나로 제대로 부모와 마주치는 상황에서의 갈등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 의견차이,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요구 등이었고, 특히 실제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교육적 신념과 부모의 요구 및 기대간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항상 심리적인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박향아, 제경숙, 2003). 고선아(2008)는 교사-학부모 관계를 초임교사와 경력교사로 나누어 초임교사가 겪는 어려움의 요인에는 초임교사라는 상황요인, 교사요인, 학부모 요인이 있으며, 경력교사가 겪는 어려움의 요인은 모두 학부모요인으로 인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사들은 부모의 과잉보호, 의사소통에서의 단절, 권위에서의 도전이란 상황이 부모와 겪는 갈등 혹은 인식되어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났다(이경화, 2001).

교사-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연구에 있어서 교사와 부모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많지 않으며, 교사-부모 관계 속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에 관련된 연구들은 유아교사 직무스트레스에 관련된 선행연구들 속에 일부분 나타나고 있다. 윤혜영(2009), 주소연(2012)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아동관련, 업무관련, 행정적 지원,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안정, 개인관련으로 나누며 학부모 관련요인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강혜정, 2002; 권기태, 1990; 김기영, 2007; 김지현, 1995; 이규식, 2007) 등이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부모관련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와 부모의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들(박상님, 윤기영, 2001; 이찬주, 2002)과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김경영, 2007; 손환희, 2009; 이미자, 2006; 이진애, 2012; 홍정연, 2012)에서는 교사와 부모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일부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손환희(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한 연구이며, 최서영, 이대균(2011)의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교사들의 인간관계 어려움을 다루고 있지만, 부모, 유아, 교직원간의 넓은 범위에서 일부 조명되었다. 이처럼 유아교사가 겪는 어려움에 관한 논문들이 있음에도 유아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학부모와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로 교사-부모 관계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요인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교사들의 태도, 그 속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감정변화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장에서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교사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는 예비교사들에게 또, 현장의 교사들에게 교사-부모 관계를 좀 더 발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2. 교사-부모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남 C시 사립유치원 교사 15명이며, 연구자와 함께 근무했던 이전의 동료 교사들과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후배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15명은 모두 유치원 현직교사로 3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다. 교사경력은 3년에서 8년까지 다양하고, 교사의 연령은 25세부터 32세에 분포되어 있으며, 모두 미혼여성이다. 담당연령은 만 3세 담임교사 4명, 만 4세 담임교사 4명, 만 5세 담임교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름은 편의상 알파벳으로 나타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이름	성별	결혼유무	교사경력	직책	연령	학력	담당학급
A 교사	여	미혼	3년	교사	25세	3년제졸	만3세반
B 교사	여	미혼	3년	교사	25세	3년제졸	만5세반
C 교사	여	미혼	3년	교사	25세	3년제졸	만5세반
D 교사	여	미혼	4년	교사	26세	3년제졸	만5세반
E 교사	여	미혼	4년	교사	26세	3년제졸	만3세반
F 교사	여	미혼	5년	부장교사	27세	3년제졸	만4세반
G 교사	여	미혼	5년	교사	27세	3년제졸	만4세반
H 교사	여	미혼	6년	교사	28세	3년제졸	만3세반
I 교사	여	미혼	6년	교사	28세	3년제졸	만4세반
J 교사	여	미혼	7년	부장교사	29세	3년제졸	만3세반
K 교사	여	미혼	7년	부장교사	29세	3년제졸	만5세반
L 교사	여	미혼	8년	교사	30세	3년제졸	만5세반
M 교사	여	미혼	8년	교사	30세	3년제졸	만5세반
N 교사	여	미혼	8년	교사	30세	3년제졸	만3세반
O 교사	여	미혼	8년	교사	32세	3년제졸	만4세반

연구 참여자의 근무 기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근무기관은 모두 3곳으로 근무기관의 이름은 편의상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AA유치원은 연구 참여자 A, B, C, D, E, F, G, H, I, J, K, M 교사가 근무하는 기관으로 각 반 구성은 1담임과 2담임 체제로 이루어져있다. 2012학년도 이전까지는 2담임체제 위주였으나, 2012학년도부터 1담임 위주의 체제로 바뀌었다. AA유치원에는 약 300명의 원아가 재원중이며, 중산층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소재하고 있다. 또한 산과 숲, 하천이 접해 있어 프로젝트수업과 숲 교육, 요리활동이 주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BB유치원은 N교사가 근무하는 기관으로 약 300명의 원아가 재원중이며, 2담임 및 3담임 체제로 반이 구성되어있다. 중산층 아파트 및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요리활동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이 주된 교육프로그램이다. CC유치원은 O교사와 L교사의 근무기관으로 약 120명의 원아가 재원중이며, 연령별 2개의 반으로 구성되어있고, 1담임 체제이다. 군인아파트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성교육과 프로젝트 활동이 주된 교육프로그램이다. AA유치원과 BB유치원은 신입교사만 채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AA유치원의 경우 4~5년차에 부장교사로 승진할 수 있는 반면, BB유치원은 8년차에도 일반교사라는 차이점을 보인다. 연구 참여자의 근무 기관에 대한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근무기관의 특성

근무 기관	소속 교사	유아교육기관 특성			
		조직 특성	소재지 특성	교육 프로그램	원아수
AA 유치원	A, B, C, D, E, F, G, H, I, J, K, M 교사	1, 2담임 체제, 연령별 부장, 원감 신입교사만 채용	중산층 아파트 밀집	프로젝트 및 숲, 요리활동	약 300명
BB 유치원	N교사	2, 3담임 체제 연령별 부장, 원감 신입교사만 채용	중산층 아파트 및 주택가 밀집	요리활동, 프로젝트	약 300명
CC 유치원	L교사, O교사	1담임체제 교사, 원감 체제	군인 아파트 밀집	프로젝트 및 인성교육	약 120명

2. 자료수집방법

연구자와 6년간 함께 근무한 후배교사 2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사용될 예비 질문지의 적절성과 문제점, 면접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목록은 본 연구자가 교직생활을 하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때와 후배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도움을 청해 왔을 때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고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최서영, 이대균(2011), 손환희(2009)의 연구에서 교사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질문목록을 점검하였다. 질문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사전 예상 질문목록

1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2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당황스러웠던 경우는 언제였습니까?
3	어떤 학부모와 전화 상담을 하기 꺼려지십니까?
4	어떤 부분이 선생님을 전화 상담을 꺼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학부모와의 어려움으로 울어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이었습니까?
6	학부모와의 관계로 선배교사나 원장님께 혼이 난 적이 있다면 어떤 일이었습니까?
7	학부모와의 관계로 선배교사나 원장님께 도움을 청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8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에 회의감을 느끼셨습니까?
9	어떤 학부모를 보면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까?
10	시간이 흘러도 속상한 감정이 남는 학부모가 있다면 어떤 경우 입니까?
11	교사로서 이해할 수 없으나, 학부모이기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 12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13 해결 후 선생님의 기분은 어떠하십니까?

예비면담은 소그룹으로 진행하였으며, 2012년 8월 8일 J교사와 K교사를 대상으로 커피숍에서 면접을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녹음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은 소그룹 또는 개인면담으로 진행하여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담방식은 반 구조화된 면담방식을 채택하여 질문목록을 중심으로 면담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에서 더욱 발전시켰다. 먼저 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유치원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다음 만남을 위한 면담날짜 및 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면담은 현 근무지인 유치원이나 커피숍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1:1면담으로 이루어졌고 D, E교사, J, K교사, M, N교사는 연구 참여자의 희망으로 1:2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날짜를 달리하여, 총 12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면담 후 기록하였고,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면담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진행되었고 면담에서 미비한 부분이나 전사를 함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전화 통화 또는 긴 문장의 문자대화 가능한 스마트 폰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 폰의 문자대화를 활용하여 추가하였다. 음성 녹음기는 연구 참여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때만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전사된 자료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연구 참여자 검증과정(member checking)을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참여자의 면담내용을 녹음 한 것을 전사하였고, 수집된 전사자료는 A4용지 116장으로 정리되었다. 전체 면담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각 면담 사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고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중에서 의미 있는 텍스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면담을 위한 질문들에 따라 자료를 범주화하는 개방형 코딩과 질문주제에 따라 자료를 범주화하는 토픽코딩 과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탁정화, 황해익, 2012). 분석 범주는 연구자들 간에 협의하여 지속적 비교방법과 교차 확인절차를 통하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공통점을 찾아 중심내용을 찾는 작업을 여러 번 하면서 새로운 주제들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적으로 자녀과잉보호, 지나친 자녀걱정, 교사에 대한 불신, 냉담, 회피 그리고 무관심,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개인적 의견 수용에 대한 요구, 유아안전에 대한 요구,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요구, ‘엄마처럼’ 또는 책임전가에 따른 요구, 교사와의 개인 친분형성 요구, 교사-부모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교사의 개인적 감정 변화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었고, 이것을 다시 부모의 성향, 부모의 요구, 교사입장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요인과 교사-부모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들의 자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내용은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요인으로 부모요인과 교사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에서 부모의 주요 요인으로 부모의 성향과 요구로 분류하고, 교사요인은 교사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내용은 교사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로 교사들의 자세에 따라 하위내용을 분류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본 연구에서 면담한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부모의 성향과 다양한 요구들, 교사자신의 입장에서 해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부모 관계는 부모가 유아를 기관에 보내는 동안 맺어지게 되는 특수한 관계로 교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맺어지게 된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의 성향은 유아를 향한 과보호, 지나친 걱정과, 자녀에 대한 지나친 믿음, 냉담·회피 그리고 무관심으로 나타났고, 유치원 운영, 유아안전 및 유아생활지도, 엄마의 책임전가 그리고 교사와의 개인적 친분형성에 대한 부모의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입장에서 생각한 측면 때문에 인한 것으로는 교사-부모 입장차이와 교사의 개인적 감정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1) 부모의 성향에 따른 어려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별 자녀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핵가족화로 홀로 남겨진 유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유아교육기관에 맡겨지고, 맞벌이 부부는 가정의 소득 수준 증가로 인하여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녀 수의 감소로 인해 한, 두 명의 자녀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로인해 자녀를 향한 과잉보호, 지나친 걱정과 믿음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냉담·회피 그리고 무관심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유아교육기관에 맡겨지는 유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1) 자녀 과잉보호

부모들은 자녀가 유치원에서의 생활이 어렵게 느껴졌을 때, 교사와의 협력으로 유아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기 보다는 유아를 대신하여 교사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였다.

B교사는 자신의 아이만 봐 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로 인해 어려움을 느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이경화(2001)는 부모의 과잉보호에 대한 교사의 불만이 교사와 부모와의 갈등이 발생됨을 지적하였다. 유아는 유치원에서의 일을 학부모에게 이야기하고, 학부모는 유아에게 들은 것을 교사에게 전하며 유아가 원하는 대로 유아를 대신해 요구하였다. 또한 유아의 요구를 들어줄 때 까지 교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교사는 부모와의 통화에 지치고, 힘들어 부모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며, 눈물을 보인 적도 있었다.

가은이 어머님은 가은이가 조금만 힘이 든다고 하거나, 밥이 먹기 싫다고 하거나, 자리를 바꿨을 때 등 가은이가 힘들어 한다며 사소한 것들도 바로 전화 하셔서 가은이가 예민한 아이니 봐달라고 하세요. 그럴 때 마다 가은이 하나만 봐줄 수 없다고 말하면 자신이 제시한 말을 들어줄 때 까지 같은 말을 계속하셔서 제가 지쳐 그것을 들어주었던 적이 많았어요.

(B교사. 2012년 10월 1일)

부모의 과잉보호는 유아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상황 뿐 아니라,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 훈육과정에서도 불쾌감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과잉보호는 I교사의 사례처럼 가정에서도 혼을 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유아를 훈육한 교사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아이들까지 데리고 원을 그만두겠다는 교사로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매일 친구들 때리고, 수업할 때 방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날도 친구를 때려가지고 멍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 때리는 건 잘못 된 거라고 야단 쳤는데.. 애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기는 잘못도 안했는데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말한거예요. 그 날 저녁에 엄마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 왜 혼 내냐고 왜 때리냐고, 거친 말 있죠, 막 섞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D교사. 2012년 10월 14일)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과잉보호는 위협이나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살피고 보살피는 보호라는 사전적 의미(이기문, 2009)를 넘어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새로운 탐색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반응 습득의 기회를 축소시킨다(이소민, 2013).

(2) 지나친 자녀 걱정

부모들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유아의 생활에서 조금의 변화가 나타나도 ‘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은 부모로 하여금 지나친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었다.

B교사의 경우 유아가 원에서 변을 자주 보는 것이 유아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표현하는 부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아가 변을 자주 보는 것은 소화를 잘 시켜서 일수도, 기관에 다니면서 잘 먹어서 일수도 있지만, 변을 자주 보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 볼 수 있다.

가희어머니께서는 자녀가 가희 하나 밖에 없어서 그런지 가희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셨어요. 특히 가희가 학기 초 변을 자주 보았는데.. 걱정하시면서 계속 유치원 탓으로 돌리며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B교사, 2012년 10월 1일)

부모들의 아이들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알고 싶어 하였다. 감기에 걸린 자녀가 기관에 있는 동안 콧물은 몇 번이나 흘렸는지, 기침은 몇 번이나 했는지부터 시작해 하루 한번 아이들의 생활과 발달 사항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의 한 학급은 약 20명~30명의 원아로 구성된다. 교사는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사랑하며, 보듬어나갈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경우에 따라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 좀 더 많은 관찰과 돌봄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유아가 원에 있는 동안 콧물을 몇 번 흘렸는지, 기침을 몇 번이나 하는지를 세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함께하던 자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자녀의 생활이 궁금하고, 교사의 답변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교사는 이런 부모를 보고 지나친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선생님 오늘 우리아이 콧물 몇 번 흘렸어요. 기침은 몇 번 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그 많이 아이들 콧물 흘리는거 기침하는거 세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이걸 까다로운 건

지, 진짜 황당해요.

(K교사. 2012년 8월 8일)

(3) 교사에 대한 불신

유아기 아동의 회상력은 완벽하지 못하다. 홍순정, 김재은, 이연섭(2003)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의 기억발달은 ‘재인’ (recognition)능력은 뛰어나나 ‘회상’(recall)능력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서 회상이란 이전에 경험한 대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 기억의 정보를 인출하는 과정이며, 재인(recognition)은 현재 지각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이전에 경험한 어떤 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또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임을 알아보는 것이다(우현경, 2013). 2세 아동의 81%가 재인력 과제에서 맞게 답했고, 회상력 측정에서는 23%만이 맞게 답했다. 4세 아동은 재인력 측정에서는 92%가, 회상력에서는 35%만이 맞는 답을 했다.”고 하였다. 내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믿음은 부모-유아교사 사이에 불신을 낳고 있었다.

교사들은 하원한 유아들이 부모에게 전하는 일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교사에게 전화해 앞, 뒤 상황은 듣지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는 부모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사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최서영, 이대균(2011)의 연구에 비추어볼 때 “부모들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보단 아이의 이야기만 듣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승이 어머님께서 아이의 말만 듣고 전화가 와서 혹시 민승이가 그림 그렸던 종이를 찢어 버렸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민승이가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지우개로 많이 지워서 종이가 헤어져서 다른 종이를 주었었는데.. 그걸 민승이가 엄마에게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려서 찢어 버렸다고 했다며 그게 사실이냐고 다짜고짜 물어보셨습니다.

(B교사. 2012년 10월 1일)

계속 원에 오기 싫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는 날이면 어머님은 전화를 하셔서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우리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냐.. 친구들이 아무도 놀아주지 않다고 하더라..하시면서 제 말은 믿어주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좀 울었던 적이 있어요.

(B교사. 2012년 10월 1일)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공격적으로 묻는 부모에게 유아에게 일어났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었고, 일어났던 상황을 들었어도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믿어주지 않는 부모에게서 어려움을 느꼈다. 교사들은 부모와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부모 관계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부정적인 관계로 형성되었다.

(4) 냉담, 회피 그리고 무관심

교사들은 유아들의 생활에 대해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인 부모들로 인해 어려움을 가졌다. 교사들은 유아상담을 위해 친절하게 말을 건네면 냉담하게 돌아오는 부모의 반응에 대하여 심리적 상처를 받았다.

전화를 걸었을 때 화가 난 사람처럼 툭툭 내뱉는 말투를 가진 부모에게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A교사. 2012년 9월 10일)

교사들은 유아의 생활을 관찰하고, 성장한 부분과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교사들은 부모와의 상담에서 부모가 보이는 냉담한 반응과 귀찮아하는 느낌을 받으면 더 이상 상담을 진행시킬 수 없음을 느꼈다. “네.,” “뭘.,” “그냥.,” “그래요.”로 짧게 대답하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무관심함을 느끼며 상담을 피하고 싶어 하였다.

혜원이 어머니는 전화를 걸었을 때 관심 없이 듣고 계시다가 항상 차가운 말투로 “예” 한마디만 하시고 빨리 끊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혜원이 어머니께는 혜원의 원 생활을 전화 드리려고 해도 전화하기가 꺼려져요. (B교사. 2012년 10월 1일)

교사들은 냉담하고, 짧게 대답하며, 유아상담을 회피하는 부모들과 대화를 이끌어 감에 어려움을 느끼며, 상담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부모와의 대화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유아교육자로서 유아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부모와 공유하며 유아를 함께 성장시키고자 하였으나, 교육적 한계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요구에 따른 어려움

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하는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부모가 직접 유아의 교육비 및 기타 활동비를 지불함으로써 운영이 이루어 진다. 그

량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교사는 부모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야 하기에, 교사로서의 교육관과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들은 기관의 운영, 교육과정은 물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자녀양육의 부분까지 교사에게 일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교사와 개인적 친분을 요구하여 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개인적 의견 수용 요구

유치원의 운영은 원장을 중심으로 교직원 회의를 거쳐 운영되어지며, 역사가 깊은 유치원일수록 운영 방침은 더욱 확고하다. 하지만 부모들은 유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치원의 운영 및 원칙에 있어서 부모의 개인적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교사와 부모는 서로가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서로가 수용하기 힘든 상대를 만나게 될 경우 실망, 짜증, 분노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박상님, 윤기영, 2001). D교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는 학년이 바뀌며 새로운 담임교사 선정 부분에서 원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선호하는 교사를 담임교사로 지목하였고, 지목한 교사가 담임교사가 되지 않자 새로운 담임교사에게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하며 D교사를 힘들게 하였다. 담임교사 선정 및 반 배정의 기준은 유치원의 운영방침이다. 유치원의 규모가 클수록 부모의 요구를 일일이 수용하기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는 유치원을 향해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였다.

학기 시작 전 반 배정 때 작년 선생님 반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우리 반이 되었어요. 그 뒤로 유치원에 대한 불만을 담임교사의 잘못인양 항의 하시고 원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면서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불만상황을 수첩에 짧게 메모를 한다든지 장문의 편지로 원의 운영이 이해하기 어렵단 식의 말들을 계속하시더라고요. 그 부모와의 만남이 곱끄러워져요. (D교사. 2012년 10월 14일)

(2) 유아안전에 대한 요구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만큼이나 유치원에서 보내는 일과시간이 점차 늘어가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기회가 많아지므로, 자녀의 안전에 더욱 민감하다. 자녀를 믿고 맡긴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부모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유아들을 위한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발달특성상 공간지각능력과 사고대처능력이 부족한 유아들은 언제나 주변의 안전사고의 위협에 노출 되어 있다. 걸어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달려오는 친구를 피하지 못해 부딪치기도 하며, 앞의 사물을 보지 못해 긁히기도 한다. 또한 공간지각능력, 사고대처능력과 관계없이, 날아오거나 기어오는 곤충들에 의한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원 주변에 공원이 있어서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모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겠죠. 그래도 그렇지. 아침에 창우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유치원에 얼마나 모기가 많으면 창우얼굴에 모기가 이렇게 많이 물려와요? 유치원에 모기약 없어요?”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집에서 물린 것일 수도 있고... 창우는 유치원 마치고 학원에 가는데 거기서 물린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유치원 탓으로만 돌리는지 정말 힘들어요. (M교사. 2012년 12월 13일)

유아는 발달특성상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은 반면 안전을 판단하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조절 능력이 부족(최서영, 이대균, 2011)하기 때문에 교실이나 놀이터에서 언제든지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언제나 아이들의 안전한 보호에 민감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G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지만 갑작스런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자신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 서운함을 표현하였다.

빈이가 의자에 걸터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턱 밑이 찢어졌어요. 여자아이라서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 전화를 드리고 빈이 집으로 먼저 갔어요. 어머님께서 많이 놀라 하시더라고요. 휴.. 어머님과 함께 병원으로 가는 내내 “죄송합니다.”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계속 아이 얼굴만 보고 계셨어요. 아이들이 다치면 무조건 선생님 잘못이라 생각하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G교사. 2012년 11월 14일)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머리를 조금 세게 부딪혔어요. 병원에 갈 정도 였으니까.. 어머님께 연락을 드리고..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더 잘 살피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그랬죠.. (O교사. 2012년 11월 30일)

(3)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요구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유치원에 오래 머물게 된 유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더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교사의 역할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요구 사항은 식습관지도, 인지학습, 교육활동 및 영재교육까지 요구하며 유아들의 유치원 전체 일과의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편식 습관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다 먹을 정도의 양을 주고 되도록이면 다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싫어하는 반찬을 줬다고, 다 먹이게 했다고 전화가 오신 부모님들도 있어요. “나중에 크며 알아서 다 먹을 건데 앞으로 좋아하는 것만 주세요.”라고 말이죠. (M교사. 2012년 12월 13일)

편식이 무지 심한 편인 아이인데요.. 매달 식단을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아이한테 식단을 읽어주신데요. 오늘은 이게 나올꺼야. 이러면서. 그리고 아이 등원시키고 나면 원으로 전화를 하시죠. ‘이건 이렇게 먹어주세요’, ‘저건 저렇게 먹여주세요’, ‘이건 먹이지 말아주세요.’, ‘이건 아주 조금만 주세요.’, 아, 요구사항이 하루도 빠짐없어요. 매일 아침 힘이 쭉~ 빠지죠. (N교사. 2012년 12월 13일)

“선생님.. 우리 아이랑 현백이는 쯤 떼어놔주세요.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요. 우리 애가 좀.. 아시죠?” 무슨 걱정을 하시는건지.. 자기 아이만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간주할 땐 좀 그렇더라고요. (O교사. 2012년 12월 30일)

(4) ‘엄마처럼’ 또는 책임전가에 따른 요구

부모는 유치원교사가 교육자이기 이전에 엄마가 놓치는 부분들을 수행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J교사의 경우 양말신겨주기, 물통 챙기기 등 가정에서 준비하여 등원해야 할 사항들까지 요구하였으며,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으로 교사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도록 미루고 있었다.

수민이 엄마는 자기 아이를 못 챙기면서 그것을 선생님한테 다 요구하세요. “아침에 우리 수민이 양말을 안 신겨 보냈네요. 유치원에 양말 있으면 신겨주세요.” 양말을 보내주신 적은 없으세요. “오늘 물통을 안 챙겼네요. 물 좀 먹여주세요.” “오늘 물놀이해요? 우리 수민이가 오늘 물놀이 신발을 안 들고 갔네요. 어떻게 하죠?” 엄마가 못 챙기고 놓치는 부분을 선생님이 다 챙겨주기를 바라세요. (J교사. 2012년 8월 8일)

또한, 부모는 유아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교사의 말은 잘 듣는다고 말하며, 유아에 대한 모든 것을 일임하는 모습으로 유아의 생활지도에 대해 요구하였다. K교사의 사례에 등장한 부모는 교사와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상담을 하면서 교사에게 유아문제행동 수정에 대한 전권을 일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행동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

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문제행동수정방법을 교사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빠른 변화를 요구하였다. J교사의 경우, 교사는 부모에게 유아의 문제행동을 함께 수정해 보고자 상담을 요청했으나 부모의 반응은 매우 걱정스러운듯한 표현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교사가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자기 아이에게 문제점이 있는 걸 엄마도 아세요. 통화를 하면 “다 안다.”, “다 안다.” 하면서 해결을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좀해주세요.” 하면서 방법까지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서 빨리 변화가 보기를 요구하세요. 무슨 선생님이 마술사도 아니고. 다 해 달래요.

(K교사. 2012년 8월 8일)

지영이가 만 3세 발달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문제는 아닌데..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산만한 것 같고, 가정에서 함께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저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고쳐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화하는 것인데 엄마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애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게 통화하시는데요, 그 통화가 끝이예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지도 않고, 질문도 없으세요.

(J교사. 2012년 8월 8일)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는 가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교사가 엄마처럼 수행해 주기를 요구하였고, 부모로서 해결하고 싶어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교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며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의 부담은 커지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꼈다.

(5) 교사와의 개인 친분형성 요구

교사는 교육상담, 행사 등을 통해 부모와 만남을 가지며, 유아들이 귀가한 후, 많은 시간 동안 전화를 통한 의논이나 상담을 한다. 교사와 부모의 주된 대화 주제는 유아의 생활에 대한 것이고, 유아를 사이에 두고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이외 시간에 교사와의 만남이나 통화를 통해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있다. 유아교사와 학부모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궁극적 목적이 유아교육 및 유아의 발달이기 때문에 그들 관계도 유아의 교육에 관계되는 일에 한정될 필요가 있음을 교사-부모 관계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윤기영, 박상님, 2001). 사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아

이를 맡겼기 때문에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기 중 개인적인 대화로 다가오는 학부모를 교사들은 다소 부담스러워하였다. E교사는 긴 시간동안 유아상담이 아닌 학부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유아들이 하원한 후에도 교사의 업무는 교실정리부터 상담, 수업준비까지 많이 남아있기에 부모의 개인 상담으로 인해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여 학부모와 통화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였다.

민준이의 원 생활 중 어머님께 통화 할 일이 있어 전화를 드리면 그 내용 뿐만이 아니라 농담과 어머님의 개인적인 일까지 이야기 하시며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까지도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화 상담 말고도 다른 업무가 많은데 한번 통화 하면 통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E교사, 2012년 10월 14일)

교사에게 식사와 차를 함께할 것을 권하며 친분을 쌓기를 원하는 부모도 있었다. 이로써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이중성을 지닌다는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윤기영과 박상님(2001)은 유아교사-부모 관계는 합법적, 공식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당당한 관계이면서 한편으로는 '치맛바람'으로 상징되는 비합법적, 비공식적 성격도 지니는 이중적인 관계라는 특성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학기 중간에 만남을 요구하는 부모에게서 두 가지 감정을 느꼈다. 하나는 인간적으로서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소위 치맛바람이라 불리는 만남이라고 생각하여 학기 중간의 만남에 대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반복된 거절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모와의 개인적인 친분형성을 위한 만남을 거절하는 것도 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한편, 윤기영(2005)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부모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의사소통에서 교사와 어려움을 가질 때 교사와의 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갈등을 겪었음을 지적하였다(손환희, 2009, 재인용).

학기 중간에 밥을 함께 먹자고, 차를 마시러가자고 연락이 오세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하시면서요. 어머님 마음이 접대나 로비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학기 중간에 교사가 부모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건 다른 어머님들로 하여금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매번 다음에 해요. 하고 넘기는데, 계속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머님께서 선생님이 자기를 피한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F교사, 2012년 9월 13일)

3) 교사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움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앞에서 밝힌 부모의 성향과 요구 외에 교사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이나 요구에 대해 교사의 감정적인 변화를 자극하여 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교사-부모의 입장차이

교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교사에게 질문하며 교사와 대화를 하였다. 반면, 교사는 교사의 입장에서 부모의 질문에 답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경험해 보지 못한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교사-부모의 입장차이로 인해 교사-부모 관계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교사는 어려움으로 인식했다.

N교사와 J교사는 부모가 해오는 "우리아이 어때요?"라는 질문을 당황스러워했다. 간혹 통화를 하며 해오는 질문이라면 당황스러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아의 발달이 매일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어떤지를 반복적으로 물어오는 것을 힘들어 했다. 이것은 교사와 부모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어려움이다. 부모는 유아의 변화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일과에서 무탈했는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아를 관찰하고 발달을 체크해야 하는 교사입장에서는 내용적 답변을 준비해야한다는 부담을 가짐으로써 이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들의 발달이 어찌보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유치원 생활에서 매일같이 급격한 변화를 발견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2, 3일에 한 번씩 연락을 달라고 하거나, 하루걸러 하루 전화 하면서 "오늘 ○○이는 어땠나요?"하고 물어보면 사실 좀 그래요. 매일 똑같이 말해줄 수도 없고, 좀 피하고 싶어져요.
(N교사, 2012년 12월 13일)

학기 초에 거의매일 전화가 왔어요. 애가 아침에 가기 싫어한다고, 울고 갔다고. 그리고 매일 물어요. "우리 애 어때요?"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물어보면 안 좋은 점, 개선된 점, 좋은 점을 이야기할텐데, 학기 초에 아이를 관찰하는 시기에 매일 전화가 와서 요즘은 어떻게냐고 똑같은 질문을 하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선생님 왜 좋다고만 하세요?" 하면서 우리 애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듯이 묻는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관찰 단계고 그날 하루의 안 좋은 일로 안 좋다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면 어머님께서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냐고, 아직은 관찰하는 단계고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했더니, 알겠나

고 하더라고요.

(J교사. 2012년 8월 8일)

(2) 교사의 개인적 감정변화

교사들은 부모와의 문제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감정 변화를 보였다. 교사-부모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 부모에게 오해를 받은 경우, 문제 상황을 대화로 풀어나간 경우까지 교사들은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보였으며, 그것은 교사가 부모를 인식함과 유아를 대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힘들어했고, 부모는 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해 큰 심적 상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는 어떤 경우에는 교사의 부주의가 아닌 상황에서도 유치원을 대표해 기관의 입장에서 업무적 안전사고 사후 대처 방식으로 인식되어온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고, 그 후 교사 개인의 감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아이가 혼자 놀다가 다친 경우나 친구들과끼리 놀다가 다친 경우.. 나의 부주의로 다쳤다고는 생각하나.. 명백한 아이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교사가 책임져야 해요.

(A교사. 2012년 9월 10일)

후련하지 않아요. 오해가 풀린 것 같긴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어머님과 잘 해결이 된 것인..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요.

(M교사. 2012년 12월 13일)

D교사는 부모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었고, 유치원의 CCTV로 그 오해는 말끔히 풀렸다. 하지만 교사는 자신의 믿지 못하고 CCTV까지 확인하는 부모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으며, 그 감정으로 부모와 다시 신뢰를 형성해 나가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오해가 풀렸음에도 자신을 믿지 못한 부모를 향해 교사-부모 간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했다.

어머님께 사과를 받았어요. CCTV로 오해가 풀렸거든요. 상황은 해결이 되었지만 아이와 그 어머니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고 뭔가 걸끄러운 감정이 남았어요.

(D교사. 2012년 10월 14일)

문제가 해결 될 때마다 기분이 달라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부모랑 그냥 좀 찝찝하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부모가 있잖아요. 저도 다 느껴지거든요.

(H교사. 2012년 10월 25일)

2. 교사-부모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들의 자세

교사들은 교사-부모 관계에서 부모의 성향과 다양한 요구들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을 교사의 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송합니다’로 형식적으로 무조건 사과하는 태도, 선배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태도, 교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더 많은 관심과 잦은 통화로 부모에게 관심을 더 기울여 신뢰를 만들려는 태도로 어려움에 대처하였다.

1) 형식적으로 무조건 사과하기 ‘죄송합니다’

교사는 교사-부모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무조건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교사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문제 상황을 확대시키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하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교사는 유아들 사이에 두고 교사-부모 관계를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의 관계처럼 생각하였고, 교사와 부모의 관계를 ‘왕과 신하’라고 묘사하며 “참아야지 할 수 없죠.....”, “비위를 맞춰야죠.....”라는 사례에서처럼(고선아, 2008)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약자로 묘사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들 하더라고요. 또 그래야하고.. 왜 모든 잘못이 일어나는 경우에 “죄송해요”라는 베이스를 깔아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사립유치원 교사의 위치는 부모 아래예요. 우린 교육서비스종사자니까요.

(F교사. 2012년 9월 3일)

대부분 일어났었던 일들은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려요.

(I교사. 2012년 12월 12일)

어떤 상황이든 부모님에게는 무조건 “죄송합니다.”하는 말을 많이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M교사. 2013년 12월 13일)

교사들은 교사의 잘못을 떠나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교사들은 문제 상황의 빠른 마무리를 위해 교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모든 상황을 교사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모의 이야기를

수용하였다. 교사들은 스스로를 부모 아래라고 생각하였으며, 상황이 커지는 것 보다는 기관을 대표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2) 원장과 선배교사에게 도움청하기

교사는 담당유아가 유치원에 등원하여 하원 후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그러다보니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분의 문제 상황이 발생하며, 교사는 유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유아의 부모와 대면해야 한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교사는 매 상황마다 새롭게 부딪치는 문제들로 부모와 대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교사는 경험이 많은 선배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선배교사나 원장의 도움은 조언을 비롯하여, 부모와의 면대면 상담을 옆에서 돕거나, 문제 해결에 있어 담임교사보다 큰 역할을 맡기도 했다.

부장선생님과 원감선생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부모와 원장님이 함께 CCTV를 보고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믿어주시더라고요.

(D교사. 2012년 10월 14일)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며 속상한 마음을 풀어 줄 수 있을 지 선배교사와 의논한 후에 연락을 드리곤 해요.

(H교사. 2012년 10월 25일)

그러나 교사들은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선배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유아의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문제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처리하지만 이미 교사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원장님에게 조언을 구했어도 부모님과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할 때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H교사. 2012년 10월 25일)

3) 교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

교사들은 문제 상황해결을 위해 무조건 ‘죄송합니다’로 일관하기 보다는 교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노력하였다. 부모와 대면하는 순간부터 교사의 입장

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모의 마음을 공감한 후에 부모가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은 유아-교사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를 풀기위해 부모에게 교사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머님과 대화로 푼 경우가 가장 많아요. (G교사. 2012년 11월 14일)

계속 죄송하다고 한 뒤, 어머님의 화가 풀어졌을 때 다시 연락을 드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잘 살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B교사. 2012년 10월 1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있었던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을 가져온 만큼 제가 가진 교육적 이념이나 신념을 부모님께 말을 하고 신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N교사. 2012년 12월 13일)

4) 부모와 신뢰를 만들려는 노력

교사들은 교사-부모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진 부모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신뢰를 쌓아 가고자 노력하였다. 교사를 특정부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오해받을 교사가 아니라 인식 바꾸기 위해 많은 시간동안 설득하는 노력을 긴 시간을 두고 보여주고자 하였고, 유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어려움을 겪은 부모와 신뢰를 만드는 것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A교사와 J교사의 사례처럼 지금은 '죄송하다' 말하지만 다음엔 부모가 먼저 내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J교사의 사례처럼 학기 초에 부모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다.

긴 전화 상담을 하며 그때의 상황(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지 때린것이 아니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심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뒤로는 아이의 작은 일도 매일 전화드리면서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놓치는 부분이 생겨도 먼저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A교사. 2012년 9월 10일)

부모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중 최고는 아이가 집에 가서 선생님 칭찬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모는 학기 초에 내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매일 전화 드려서 칭찬도 하고, 유아의 문제점도 알려주고 하니까 뒤에 좀 다치거나 조금 소홀해져도 이해해 주시고, 제 편이 되어 주더라고요. (J교사. 2012년 8월 8일)

교사-부모 관계에서 교사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부모로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있었던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빠졌던 감정을 잘 정리하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쏟는 시간동안 교사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치유되고 있음은 부모가 교사 편이 된다는 것에서 알 수 있고, 신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현장에서 교사-부모 관계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를 밝힘으로써 원만한 교사-부모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C시 유치원에 근무하는 15명의 교사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1.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은 부모요인, 교사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부모요인으로 인한 어려움

부모요인은 크게 부모의 성향과 부모의 요구로 나누어졌다.

첫째,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의 성향은 자녀 과잉보호, 지나친 자녀걱정, 교사에 대한 불신, 냉담·회피 그리고 무관심이였다. 부모들의 이러한 성향은 교사-유아관계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교사의 역할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유아들에게 위협이나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유치원에서의 생활 하나하나를 알고자 하였으며,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혹시 어떤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의 이야기만 듣고 오해하는 경우(윤기영, 박상남, 2001) 생김으로써 교사-부모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정립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유아에 대한 무관심한 부모의 태도, 미묘한 표정이나 눈빛 등 암묵적인 태도에서 교사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보고된 연구(장지원, 2005)처럼 이것은 교사-부모의 상호작용을 단절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부모의 성향으로 유치원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자질을 가진 교사로서 자신을 먼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교사로서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부모가 교사의 교육관과 역할에 혼란을 야기 시킨다고 부모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에게는 위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모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교사의 생각은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가져와 부모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부모의 과보호와 지나친 걱정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함으로써 유아의 발달과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모교육의 방법에는 소극적인 형태인 가정 통신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치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모가 매주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자녀에 대한 걱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의 요구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개인적 의견수용, 유아안전, 유아생활지도, 엄마처럼 또는 책임전가 그리고 교사와의 개인적 친분 형성 요구이다. 교사들은 원장님의 운영과 부모들의 요구 사이에서 교사로서 해결할 수 없는 또는 들어줄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것은 교사들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사립기관의 특성상 원장과 부모의 요구 모두를 만족스럽게 수용해야 한다는 심리적·상황적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김현주, 2005). 또한 학부모의 요구사항에 대해 맞춤형서비스업 종사자처럼 처신하게 된다는 것이 학부모와의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최서영, 이대균, 2011). 이러한 상황들은 교사로 하여금 교사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교육관을 흐리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로 인식되는 유아교사에 대한 존경심 부족을 만들고 있었다(이현경, 2000). Miretzky(2004)는 교사-부모 관계의 불균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교사는 권위를 유지하고 부모는 고객의 입장을 유지한다고 설명하였다. Thorne(1993)에 의하면, 교사들은 유별난 부모의 한계에 대해 배우거나 부모의 요구에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받는다. 또한, 부모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책임을 인식한다라고 밝혔다(Miretzky, 2004, 재인용).

교사는 부모의 요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으며, 부모는 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처럼 부모의 무리한 요구는 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고선아(2008)는 현장에 대해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부모를 일일교사, 보조교사 등으로 유아교육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

보조교사나 일일 교사로 교실에 들어온 부모로 인해 간식, 식사 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도움을 주는 부모는 식습관 지도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보조교사로 참여한 부모의 도움으로 대집단 활동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좀 더 심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실의 환경 구성에 도움을 받음으로서 교사-부모 관계가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모를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참여수업이 있다.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부모는 자녀의 생활을 이해하게 되고 하루일과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어 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부모를 유아교육 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좋은 방법이 된다. 또한 교사 역시 부모가 왜 이런 요구들을 하는 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유아교사는 부모의 배경(생활수준, 학력, 직업, 생활경험 등)에 따른 개인차를 인식하고,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결과를 면담에 활용함으로써 부모의 요구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유아의 개인차 뿐 아니라 부모의 배경에 따른 개인차까지 분석하고 이해한다면 어려운 존재의 부모가 아니라 함께하는 유아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교사요인으로 인한 어려움

교사는 교사 자신의 입장에서 교사-부모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해석함으로써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어려움은 같은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는 교사-부모 간 입장 차이와 교사들이 문제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느끼는 개인적 감정변화로 나타났다.

첫째, 교사-부모 간 입장 차이에서 나타난 어려움은 유아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와 양육자로서의 부모가 서로의 입장에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부모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는 것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맞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주위를 기울이지 않거나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부모와 교사는 동일한 의사소통 내용일지라도 달리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오해나 불분명한 기대가 발생하게 된다(손환희, 2009). 또한 교사와 학부모는 그들의 주변에서 관찰되는 사물로부터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내려는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자극들 중에서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고 활용하여 그들의 환경을 조직하고 재해석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각 활동은 개인들의 사적인 의미 부여이므로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은 지각활동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김경영, 2007)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에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며, 서로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교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둘째, 교사-부모 간 어려움 속에서 나타난 교사의 감정은 두려움, 후련하지 않음, 좋지 못한 감정, 무너진 신뢰, 자책감 등으로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 갈등에서 감정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부정적 감정변화는 함께 생활하는 유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교사-부모 간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교사가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의 빈도를 늘리고, 교사-부모 간 신뢰 속에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이란 어머니와 교사가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을 이용하여 서로의 가치나 생각을 함께 나눔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진애, 2012). 장지원(2005)은 부모-교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면의 변화를 밝혔다. 첫째, 교사의 업무를 이해하는 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셋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의 계획과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넷째, 가정과 연계된 의사소통이 실시되었다. 또한 부모-교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실행되는 전략 실시 과정에서 교사의 변화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교사 자신의 편견을 재고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융통성이 조장되어 부모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에 영향을 미친 점이다. 이처럼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을 촉진시켰을 때 교사-부모는 서로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소통은 꼭 말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자나 눈빛, 몸짓으로도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사-부모 간 입장 차이를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속에서 신뢰도 함께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교사-부모 간 신뢰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교사들의 감정 변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2. 교사-부모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들의 자세

교사-부모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들의 자세는 4가지로 나타났다. 교사-부모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들의 자세는 '죄송합니다'로 형식적 사과하기, 원장과 선배교사에게 도움요청하기, 교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 부모와 신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유아로 인해 부모와 마주하는 문제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4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교사가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시작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부모와의 문제 상황을 크게 만드는 것을 막고, 기관과 교사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막고자 잘못된 원인을 찾는 것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며 흥분한 부모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본 연구에서 교사-부모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들의 자세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최서영, 이대균(2011)의 연구에서 밝힌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 나타난 교육협력의 어려움 중 학부모의 '내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사-부모 관계에서 오는 공통된 어려움은 유아를 사이에 둔 유치원교사와 부모사이에서 오가는 의사소통 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교사들은 부모의 일방적 의사소통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언급한 선행연구들(김경이, 2011; 김기영, 2007; 송연숙, 최경애, 2002; 주소연, 2012)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지훈(2012)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사와 부모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방향(two-way)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교사가 부모보다 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김기영(2007)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교사-부모 사이에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서라 하였으며, 김경이(2011)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아동, 동료, 경력과 보상에 대한 직무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교사-부모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긍정적 의사소통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의사소통은 대화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아교사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쉬운 의사소통방법을 면대면 면담보다는 메시지를 이용한 상담이 부담이 덜 하며, 일일 보고서나 개인 알림장을 선호한다(이지훈, 2012; 홍정연, 2010)는 선행연구처럼 글로 시작하는 작은 실천의 의사소통이 교사-부모 관계를 향상시키는 시작이 된다. 부모는 교사나 유아교육기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다양한 경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부모와 교사 사이에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사와의 파트너십 형성은 유아교육

기관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인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만든다. 따라서 교사와 자주 의사소통하는 어머니들은 교사를 비롯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이미자, 2006).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교사의 태도, 교사와 부모의 첫 만남에서 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사의 태도 등의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예비교사 시절에 교사-부모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한 수업을 수강한 적이 없다. 이것은 교사 직전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며, 부모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교사교육을 통해 부모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또한 멘토링이 초임교사의 입문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었으며, 교사로서의 효능감과 교수 능력 및 교수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김지영, 2012)한 것처럼, 유치원에도 경험이 많고,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교사와의 멘토링을 통해 교사-부모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 대처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는 예비교사들에게 또, 현장의 교사들에게 교사-부모 관계를 좀 더 발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유치원교사는 교사-부모 관계에서 자녀 과잉보호, 지나친 자녀걱정과 교사불신, 냉담·회피 그리고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성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과잉보호와 지나친 자녀 걱정은 교사가 교육자로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교육관의 혼란을 야기시켰고, 유아에 대한 지나친 믿음은 교사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었다. 또한, 냉담·회피·무관심은 교사의 다가감을 암묵적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다가와 가정과의 연계학습을 힘들게 함으로써 교사를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는 부모에게 참관수업,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유아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편견과 오해가 없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유치원교사는 기관의 운영 방침, 유아안전 및 생활지도에 대한 요구, 책임전가, 교사와의 개인적인 친분형성을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부모의 요구를 만족스럽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에서 심리적 상황적 압박감을 느꼈고, 교사로서 자신을 낮추어 보게 됨에 어려움

을 느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는 부모에게 유아교육현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아와 함께 활동하는 참관수업, 교사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일교사와 보조교사로 유아교육현장에 참여시킴으로써 교사-부모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셋째, 유치원 교사는 교사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석함으로써 교사-부모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겪었고, 부모와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 변화를 겪었다. 교사-부모 간 입장 차이는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교사와 부모가 지극히 주관적인 자신들의 입장에서 '같은 문제, 다른 해석'을 하였고, 교사와 부모가 만들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교사-부모 간 어려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입장을 부모에게 모두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부분 수용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어야 하는 교사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교사-부모 간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교사의 부정적인 감정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시도가 필요하다. 교사-부모 간 빈번하게 의사소통하는 어머니일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진애(2012)의 연구처럼 교사-부모는 웃는 얼굴과 눈빛, 몸짓부터 메모, 대화에 이르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유치원교사는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죄송합니다'로 형식적으로 무조건 사과하는 자세, 원장이나 선배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세, 교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어려움을 주는 부모와 신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대처해 나갔다. 유치원교사들의 우선적인 대응방법은 교사-부모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항상 먼저 부모의 입장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사과의 표현인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모의 감정을 완화시켜 어려운 상황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미 어려움을 겪은 사이기에 교사-부모 간에 대화나 만남을 꺼려하는 교사들이 생겨났다. 때문에 면대면 방식보다 개인알림장, 문자메시지 등 글로 시작하는 의사소통 방법도 교사-부모 간 오해와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방법이며, 부모와의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교사의 태도에 관한 교사교육이나, 경험이 많은 교사와의 멘토링을 통해 방법을 전수받는 방법도 있다.

이상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교사-부모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가 교사의 목소리를 통한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부모 관계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기에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교사-부모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부모 관계의 중요성을 밝히는 가치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 교사-부모의 같

등 속에서 교사-부모 관계를 이어주는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사-부모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및 예비교사와 초임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교사-부모가 함께 어울리는 협력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혜정(200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진(2009). 부모-교사 협력행동과 부모-교사 신뢰관계가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선아(2008). 사립유치원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가 학부모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보람에 관한 이야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기태(1990).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영(2007). E-mail과 SMS를 활용한 교사-학부모 의사소통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이(2011). 유치원 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직무 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영(2007).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2001).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2012). 유아교사의 멘토링 경험이 교사효능감 및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1995).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육활동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5). 사립유치원 교사문화의 특질.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두산동아 편집부(2009).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서울: 두산동아(주).
- 류왕효(1999). 학부모 역할 기대에 관한 유치원 학부모 의견조사연구. **사회과학연구**, 6(3), 265-284.
- 박근주, 송원호, 김연진, 이화영(2009). **유아교사론**. 서울: 양서원.

- 박상남, 윤기영(2001).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인간관계.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2(5), 157-180.
- 박향아, 제경숙(2003).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2(3), 67-80.
- 변은정(2006). 부모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와 역할 인식.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세란(2008). 보육시설 만 1, 2, 3세 학급에서의 어머니-교사 관계에 대한 상호인식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환희(2009).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연숙, 최경애(2002). 유치원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인적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논문집**, 29(2), 97-110.
- 우현경(2013). 사전지식 제공여부와 면접조건에 따른 4, 6세 유아의 사전 정 기억과 오 기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기영(200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학부모 탐구**. 서울: 양서원.
- 윤기영, 박상남(2001).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인간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17(1), 379-404.
- 윤혜영(2009). 유치원 조직풍토,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2001). 부모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이야기. **교육인류학연구**, 4(3), 179-199.
- 이규식(2007).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자(2006). 교사-어머니 의사소통과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및 양육 스트레스.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희(2008). 유아교사의 이직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 원장 및 부모와의 인간관계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민(2013).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하는 유아 공격성과 어머니 양육태도와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훈(2012). 유아교사와 부모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와 의사소통.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애(2012). 어머니-교사의 의사소통 빈도와 의사소통 태도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찬주(2002). 어머니-유아교사 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2000). 유치원 초임교사가 교직 수행시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5(2), 185-204.
- 임우영(2010). 유치원교사의 부모-교사 협력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선(2010). 가정 연계를 위한 유아교육 기관의 부모 참여 실태 및 요구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지원(2005). 부모-교사의 협력적 관계형성 및 상호이해를 위한 부모 참여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연(2012). 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서영, 이대균(2011).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유아교육학논집**, 15(5), 77-102.
- 탁정화, 황해익(2012). 영아 교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73-103.
- 홍순정, 김재은, 이연섭(2003). **인지와 창의성 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홍정연(2010). 보육시설에서 취업부모와 보육교사가 상호 지각하는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ger, E. H.(1995). *Parents as Partners in Education*. NJ: Prentice-Hall. In:
- Campion, J.(1992). *Working with vulnerable young children : Early intervention*. London : Cassell.
- Chuan, L. C., Marvin, C. A., & Churchill, S. L.(2004). Teacher factors associated with preschool teacher-child relationships: Teaching efficacy an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5, 131-142.
- Henderson, A. T.(1987). *The evidence to continues to grow*. Columbia, MD: National committee for citizen in education.
- Miretzky, D.(2004). The communication requirements of democratic schools: Parent-teacher perspectives on their relationships. *Teachers College Record*, 106(4), 814-851.
- Powell, D. R., & Diamond, K. E.(1995). Approaches to parent-teacher relationships in U.S. early childhood programs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Education*, 177(3), 71-94.
- Thorne, G. B.(1993). *Parent involvement in the schools: A new paradigm for preservice and inservice education of teachers and administrato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US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iculti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and parents and find out factors that make the relationship difficult.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what are the difficulties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in making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Secondly, what are the reactions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toward the difficulties in making relationships with the parent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5 teachers of private kindergartens located in C city.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Their responses were categorized into several themes while examining transcribed data continuously. The difficulties expressed by the kindergarten teachers were analyzed into “Teacher aspect” and “Parent aspect”.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teachers found difficulty with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their demands. Also, teachers found difficulty with mak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parents because they perceived problems from their own perspective. Secondly, The teachers’ reactions towards the difficulties of the relationships with the parents appeared into 4 different types.

▶*Key Words: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and parents, kindergarten teacher’s difficulties*

논문투고 2013. 08. 10.
수정원고접수 2013. 11. 29.
최종게재결정 2013. 12. 23.